

600번째 마당 여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빛고을국악전수관 진행...17년간 8천명 출연·7만6천명 관람 국악기 체험·국악문화학교 등 운영...7일 '소리화' 초청 공연

개관 17주년을 맞은 빛고을국악전수관(광주시 서구 풍암동)은 연면적 2000㎡(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국악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137석을 갖춘 공연장과 전시실, 국악전시실, 수장고, 뮤지엄샵이 마련돼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문을 연 다음해인 2003년 5월 '토요상설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국악 공연을 이어왔다. 2004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다채로운 국악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소리화' 강현영씨

올해 국악한마당 공연 예산은 3600만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 올랐다. 예산은 국악인들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출연료와 홍보전단 제작비, 행사 진행비 등으로 쓰인다.

공연이 열린 17년 동안 국악한마당을 찾은 관객 수는 7만6000여 명. 매회 120명 안팎의 관객들이 객석에서 무대를 빛냈다. 유명 국악인이 출연할 때는 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관객이 찾고 있으며 매 공연을 빼놓지 않는 열혈 국악 애호가들도 있다.

전수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는 국악기 전시실(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이곳에서는 편종·편경·가야금 등 150여점의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다. 매년 4000명이 찾고 있으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역 전통음악 활성화에 앞장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악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7일 600회를 맞는다. '다운소리'의 지난해 공연 모습.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전수관은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법,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8개반 국악문화학교를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거쳐간 국악문화학교 수료자는 1만 5000명에 달하고 어린이국악교실을 통해 2500명의 꿈나무가 우리 가락을 배웠다. 수료자들은 전수관 개관 기념 공연 등의 무대에 올라 값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7일 오후 7시 열리는 600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에는 판소리 예술단 '소리화'가 춘향가를 연주하며 봄의 시작을 알린다. '소리화'는 박지운 명창(국가무형문화재

5호 '심청가' 이수자)의 문하생인 박해라·이연주·소지원·박선호·박준호·임재현·이승훈·강현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젊은 소리꾼은 사랑가, 이별가, 십장가, 춘향변지, 어사장모 상봉 대목으로 이어지는 보성 소리 김세종제 춘향가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세화예술단(대표 한영진·14일)과 대금연주자 이세현(21일), 무용가 박순영(28일), 해금연주자 김선임(4월4일) 등의 무대가 예고돼 있다.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은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주 공연이 열린다. 문의 062-350-45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내음 우린 차 한잔 하세

광주 롯데갤러리 이치현 도예전...27일까지

따스한 햇살 아래 차 한잔 하고픈 계절, 봄향기 가득한 도예전이 열린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봄맞이 초대전으로 도예가 이치현의 작품전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활발한 작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작가의 여덟 번째 개인전으로 전시 주제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신작 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의 주 전시작은 탕관, 찻잔, 속우, 다관, 다반, 차호 등 전통 차도구다. 중국 국가인증 다예사와 차문화예절지도사를 맡 정도로 차를 사랑하는 이 작가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ভাল 일인 도자기를 배운 것이고, 두 번째로 ভাল 일은 차를 배운 것이다. 도자기는 나에게 목표와 생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작한 차는 나에게 인생을 주었다" 라고 말한다.

전시에서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달향 아리과 사발, 접시, 화병, 머그잔까지 작품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조선자기의 질박한 질감과 함께 섬세한 기형을 추구하는 이 작가는 자연 그대로의 색과 형태, 결을 통해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미감을 도자기에 담으려 애쓴다.

서남대 산업디자인과(도예전공)를 졸업한 이 작가는 조선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미술학과 공예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흙이야기 도예공방' 대표인 그는 '주전자회', 광주전남도 예가회, (사)한국차문화협회원(차문화예절지도사1급 전문사범)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오는 16일(오후 2시30분-3시30분)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봄날의 찻자리를 위한 다도체험'도 열린다. 오프 행사 6일 오후 6시. 문의 062-221-180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 청년작가 김다인전

13일까지 금호갤러리 1·2관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다인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3일까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김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여름의 소리가 들린다'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작가는 팝아트적 느낌이 물씬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 작가의 작품은 주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한 인물들을 소재로 한다. 화려한 색감과 자유분방한 묘사 등 팝 아트의 표현을 가감없이 드러낸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며 겪게 되는 삶의 단편들이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들은 다채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한다. 때론 왜곡되고, 과장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현대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모습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김 작가의 작품들은 전통 한국화 재료인 먹과 채색물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목구비와 머리카락은 세필을 이용해 섬세하게 표현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유망주 9명의 무대

광주음악협 7일 금호아트홀

새 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음악 유망주 9명의 무대가 펼쳐진다.

(사)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광주음악협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2019 신인 음악회'를 연다. 올해 창립 32주년을 맞는 광주음악협회는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광주음악제, 실내악축제 등을 통해 신인 음악가를 발굴해왔다.신인음악회에는광신대·광주대·전남대·조선대·호남신학대 등 광주 5개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졸업생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바리톤 이준희가 오페라 '돈 조반니'의 '키탈로그의 노래' 등을 부르며 음악회 문을 연다. 이어 테너 김태성(광주대), 테너 이창훈(광신대), 베이스 조바울(호신대), 소프라노 김미란(광신대)은 오페라 '라보엠'·'토스카'와 베르디의 오페라 '아틸라',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리아 등을 부른다.

정민경(호신대)씨는 쇼팽의 '폴로네이



베이스 조바울 피아니스트 김미소

즈 환상곡 작품 61'을 연주하고 김다인(광주대)씨는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작품 61'로 실력 발휘를 한다. 이현(조선대)씨는 생상스의 작품을 리스트가 편곡한 '죽음의 무곡 작품 555'를, 김미소(전남대)씨는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을 들려준다.

한편 광주음악협회는 오는 4월13일 열리는 '34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일부터 4월6일까지 모집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5767-165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개강

7~31일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의 65기 정기강좌가 마련됐다.

7일부터 31일까지(오후 7시 30분)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인문학, 글쓰기, 소설창작, 철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 인문사회융합 시간에는 명혜영 교수가 '육체 페미니즘', '피부우스 피로 서 몸'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 소설창작 시간에는 이진 교수(소설가)

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주제로 강의와 실기를 진행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명 교수와 신우진씨가 각각 '자유주제 리포트 & 콜로키움: '논리수업'', '목독회, 심인심책'을 강의한다. 금요일 철학스터디에서는 명 교수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주제로 강의한다.

토요일(오후 2시) 영화 덕후 시간에는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